

영국내 테러로 편의치적국 보안레벨 인상 파나마·리베리아 선적 영국 등 입항시 ISPS상의 보안레벨 1에서 2로 상향조정

영국 런던에서 현지시간 7월7일 발생한 동시테러의 여파로 세계선복량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파나마, 리베리아 양 편의치적(FOC)국의 국제조약상 선박 보안레벨이 1에서 2로 상향조정됐다.

외신에 따르면, 전체 등록선박이 보안레벨 상승 대상이 아니고, 파나마선적은 영국, 리베리아선적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선박보안 레벨의 상승에 따라, 양국 선적의 각 선박은 상위의 보안계획에 근거하는 대응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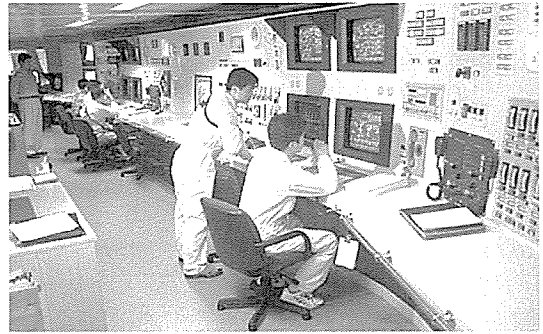
선내 경계체제가 강화되기 위해 승무원에게는 선내순시 등 경계태세 확립이 요구되지만, 이로 인해 코스트 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선박의 운항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4년 7월1일에 발효한 개정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조약)과 국제선박 및 항만보안(ISPS) 코드는, 동조약 체결국의 정부에 1-3단계의 보안레벨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은 레벨 1로, 레벨 3이 최고의 경계체제가 된다. 또, 동조약 대상항만도 이와 같이 보안레벨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선박의 보안레벨 1에서는



△선박의 액세스 관리 △제한구역의 모니터링 등을, 각 선박마다 마련한 선박보안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레벨 2에서는 레벨 1에서의 조치에 경계태세 강화 등이 추가된다.

실시 내용은 원칙 비공표로, 선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통틀어는 말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1시간에 1회의 순시를 30분마다로 좁혀지거나, 제한 구역을 설정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레벨 3의 경우, 경계 인원수의 증가 등 경계태세 강화에 따른 코스트 상승 가능성도 있지만, 레벨 2에서는 비용증가는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파나마, 리베리아 선적 선박은 특정국가 입항시에 한정하여 선박보안 레벨을 2로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은 모두 자국 항만의 보안 레벨을 1로 설정해 있기 때문에, 선박측과 항만측의 보안레벨이 다르게 된다.

ISPS코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선박보안직원(SSO)은 항만시설 보안 직원(PSO)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는 대응수위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